

평창올림픽 G-200 행사...홍보대사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정확히 200일 앞둔 24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열린 'G-200, 2018 평창을 준비하는 사람들' 행사에 참석했다. 홍보영상 촬영(왼쪽·오른쪽 사진)과 함께 2018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서도 위촉돼 본격적으로 평창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가운데 사진)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중앙정부도 힘을 보태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고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평창 | 뉴스시스

VAR 시행 1개월...판정불만 목소리 어느새 잠잠

(비디오판독시스템)

이의제기 횡수 눈에 띄게 감소 연맹 "신뢰 쌓이고 있다는 방증" 판독 시간도 40초 이내로 줄어

2017년 7월, 한국프로축구는 국제축구계의 혁명적인 변화 물결에 동참했다. 비디오판독시스템(VAR·Video Assistant Referee)을 도입한 것이다. K리그 클래식(1부리그) 시즌 개막전부터 오심 논란이 끊이지 않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빠르게, 또 전격적으로 도입을 결정했다.

축구를 포함, 모든 스포츠에서 오심은 피할 수 없으나 ▲특정구단의 수혜와 피해 ▲의도적인 판정 등 여기저기서 불거진 다양한 오해와 이로 인한 불신은 반드시 해소시킬 필요가 있었다. 연맹은 일단 도입 무대를 클래식으로 한정했지만 조만간 챌린지(2부리그)까지도 확대할 방침이다. 연말 진행될 챌린지 플레이오프(PO)와 승강 PO에도 VAR을 시행할 계획이다. 연맹은 7월 1~2일 클래식 18라운드를 시작으로 22~23일 열린 클래식 정규리그 23라운드까지 모두 13차례 VAR 판독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판독 결정이 기록에 반영된 것은 10차례였다. 사안들도 다양하다. 레드카드(4회) 및 득점

취소(3회) 상황이 가장 많았다. 페널티킥 상황에서도 3차례 판독을 했다. 이 가운데 1개의 PK가 주어지지만, PK 취소도 2차례나 있어 눈길을 끌었다. VAR은 득점 상황, PK 부여, 레드카드 적용, 징계조치 오류 등 4가지로 특정된 장면을 확인해 주심의 판정을 돕는 시스템이다. 물론 처음부터 매끄럽지는 않았다. 갓 도입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탓에 시행 첫 라운드 때는 상당한 혼란이 빚어졌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장면을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그라운드 현장과 경기장 외곽 VAR 부스가 소통하기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기계결함 때문에 판독

시작부터 마지막 결정까지 5~6분이 흐른 적도 있었다. 다행히 지금은 다르다. 판독 자체를 20초선에 끊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종 결정 뒤 결과 반영도 물론 굉장히 짧아졌다. 정확히 40초 이내에 마무리 지을 때도 있다. 단순히 판독시간에만 변화가 생긴 건 아니다. VAR 판독이 이뤄지는 횡수 자체도 줄어들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FC서울-전북현대전처럼 빅 매치가 열린 23일 경기조차 VAR 상황이 1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연맹이 VAR의 무난한 시행과 정착을 위해 투입한 초기 자금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이를 풀 시점으로 확대하면 훨씬 많은 자금이 필요하

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엄청나게 줄인 액수다. 시스템 기기가 장착된 차량을 각 경기장에 배치하는 '이동식 VAR'을 선택한 것도 결국은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현재 판독차량 3대가 운용되고 있고, 전문 장비는 모두 6대 마련됐다. 그래도 많은 비용을 들인 가치는 충분하다. VAR이 시행된 이후 구단에서 연맹으로 제기한 판정불만 횡수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 불만을 털어놓는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았다. 연맹 핵심 관계자는 "구단, 선수, 심판들의 신뢰가 점차 쌓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판정의 핵심은 바로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축구인 차범근' 담은 첫 박사학위 논문 나온다

본지 최현길 전문가 첫 학문적 연구 '축구로 성공 했기에 축구를 위해 헌신' 차범근 인생 관통하는 '사명감' 재조명



축구인 차범근(64)은 한국축구의 살아 있는 전설이다. 선수, 감독, 유소년지도자, 행정가로서 한국축구발전에 크게 기여한 입지전적 인물이다. '위대한 선수' 차범근은 1970년대 한국은 물론이고 아시아를 호령했고, 1980년대에는 세계최고 무대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다. 대한축구협회가 공인한 기록에 따르면, A매치 136경기 출전 58골(FIFA 승인 기록은 121경기 55골), 한국인 선수 최초 센추리 클럽 가입, 한국인 선수 중 역대 최다 A매치 골, 독일 분데스리가 308경기 출장 98골 등을 기록했다.

투자할 해야만 한 나라의 축구가 강해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축구교실을 통해 유망주를 조기 발굴했고, 자신의 이름을 딴 축구상을 제정해 시상하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동기부여와 비전을 제시했다. 축구교실과 축구상에는 그의 축구철학이 오롯이 녹아 있다. 지금도 유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다.

종대학교 2017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 논문은 문헌자료연구와 심층면담으로 50여년에 걸친 차범근 축구인생의 가치관과 그 가치관 형성의 배경을 밝혀내고자 했다. 주요 키워드는 ▲꿈의 가치 ▲도전 정신 ▲프로의 속성 ▲슬럼프 극복의 대상 ▲축구의 진정한 가치 ▲지도자의 마음가짐 ▲승부조작 발언과 징계 ▲대표팀 운영의 선진화 ▲월드컵의 아픈 기억들 ▲축구교실축구상과 비전 등이다.

이러한 차범근의 노력과 성과,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그의 축구생애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는 없었다. 이번엔 차범근의 축구생애를 다룬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다. 논문 주제는 '축구인 차범근 생애사 연구'다. 논문 저자는 최현길 스포츠동아 전문기자, 논문 지도교수는 이응수 세종대학교 교수(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다. 이 논문은 차범근의 축구생애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다. 최 기자는 8월 18일 열리는 세

특히 이 논문을 통해 드러난 것은 차범근 축구인생을 관통하는 키워드가 사명감이라는 사실이다. 축구를 통해 성공했고, 축구 덕분에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축구를 위해 헌신해야한다는 생각, 그게 바로 사명감이었다. 축구인들의 삶을 개선하고 윤곽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축구교실을 만들고, 축구상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 모든 걸 스스로 해내겠다는 생각이었다. 자신은 배고픈 시절을 보내며 좋은 축구를 배울 수는 없었지만 후배들에게는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했던 것이다. 이 모든 게 차범근에게 사명으로 다가왔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 이 같은 삶의 가치관은 후배 축구인들에게는 귀감이 되기에 충분하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씩씩이 영입-어려운 구단 지원 큰 손 바이에른 뮌헨의 두 얼굴

할로 분데스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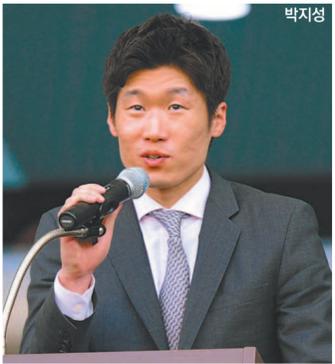
독일 축구저널 슈포르트 빌트에 따르면 분데스리가가 팬 가운데 25.6%는 바이에른 뮌헨의 팬이라고 집계됐다. 그만큼 바이에른 뮌헨의 이야기는 분데스리가 팬들에게 많이 회자될 수밖에 없고 어떤 이슈건 간에 바이에른 뮌헨의 이야기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이번 여름이적시장에서 바이에른 뮌헨은 또 한 번 '씩씩이' 영입을 시도했다. 시즌 도중 TSG 호펜하이머에서 니콜라스 쥘레(21)와 제바스티안 루디(27)의 영입을 확정했다. 브레멘에선 세르주 나브리(22·2017~2018시즌 호펜하이머로 임대)까지 데려왔다. 올랭피크 리옹에선 구단 역대 최고액인 4750만 유로(약 600억원·옵션포함)의 이적료를 기록하며 코렌트 톨리소(22)를 영입했다. 여기에 헤메스 로드리게스(26·전 레알 마드리드)의 임대영입까지 확정해 분데스리가에서는 어김없이 '큰 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일각에선 '로드리게스나 톨리소 같은 대형 영입은 팀의 전력보강을 위해 필수이지만 젊은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활약하면 모두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버린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분데스리가 팀들이 바이에른 뮌헨의 셀링 클럽으로 전락해버린다는 시선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쾰른(독일) | 윤영선 통신원

하지만 또 한편으로 바이에른 뮌헨은 무조건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번 TSV 1860뮌헨 사태로 보듯 비록 바이에른이 뮌헨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경기장 임대료 계약을 빨리 해지시키며 급한 불을 끄게 만들었다. 2017년까지 약 2800만 유로(약363억원)의 임대료를 당장이라도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이를 유보해줬다. 자금 압박을 받았던 TSV 1860뮌헨은 일사천리로 그랜발더 슈타디온으로 홈구장을 겨우 옮겨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됐다. 그 뿐이 아니다. 2005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무이자로 2백만 유로(약 26억원)를 빌려주며 위기의 도르트문트에게 구원의 손을 내밀었다. 2015년에는 디나모 드레스덴(2부 리그)에게 3백만 유로(약 39억원)를 지원했다. 1995년 헤르타 베를린, 2008년 SV다름슈타트에게도 재정적으로 도와줄 만큼 많은 구단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거인 바이에른 뮌헨 때문에 다른 구단들이 상대적으로 예소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있기에 서로 공존하며 버틸 수 있었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다. 바이에른 뮌헨을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확실한 것은 바이에른 뮌헨이 여러 측면에서 분데스리가의 중심을 잡고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박지성, '한국인 1호' 국제축구평의회 자문위원

IFAB, 박지성 등 자문위원단 18명 위촉 축구규정 바꿀 때 전문가로서 조언 역할

회기적인 제안도 검토사안으로 결정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16년 말 IFAB로부터 새롭게 개편될 자문위원 후보를 추천해줄 것을 요청받고, 박지성과 과거 쿠웨이트대표팀에서 활약한 파이잘 알 다킬(60)을 복수 추천했다. IFAB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2명을 AFC 대표로 선정했다. IFAB 자문위원 선정은 박지성 개인에게도 의미가 상당하다. 2014년 현역생활을 마무리한 박지성은 지도자가 아닌 축구 행정가의 길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 2016년 9월 국제축구연맹(IFAB)이 주관한 마스터코스(석사) 과정을 시작, 최근 졸업논문을 발표하며 학위를 취득했다. FIFA 마스터 코스는 축구뿐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를 망라하며 마케팅과 역사, 법률 등 여러 분야를 공부해야 한다.



IFAB는 박지성 이외에 네덜란드 축구영웅 마르코 판 바스텐, 프랑스 국가대표 출신 크리스티앙 카랑보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獨 올해의 선수상' 필립 람, 뜻밖의 은퇴 선물

674표 중 242표...2위 토니 크로스 제쳐 2016~2017시즌을 끝으로 현역 유니폼을 벗은 독일 수비수 필립 람(34)이 뜻 깊은 은퇴선물을 받았다. 독일 출신 스포츠스타로서 최고 영예인 '올해의 선수상'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 축구전문잡지 키커는 7월 24일(한국시간) "독일스포르츠자협회(VDS)가 올해의 선수로 최근 은퇴한 람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람은 총 유효투표수 674표 가운데 242표를 얻어 192표를 얻은 토니 크로스(27·레알 마드리드)를 근소하게 제쳤다. 람은 고향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데뷔와 은퇴를 한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스타다. 11살 때 뮌

헨 유소년팀에 발을 내디뎠고, 이후 수비수로서 성장가도를 달렸다. 2003년부터 3년간 VfB 슈투트가르트에 임대됐지만, 2005년 7월 친정팀에 복귀해 분데스리가와 UEFA 챔피언스리그, FIFA 클럽월드컵 우승을 수차례 이끌었다. 2012~2013시즌부터 5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는 데 일조했다. 대표팀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월드컵과 유럽선수권대회에 모두 세 차례씩 나갔고, 2014년 브라질월드컵 정상을 맞았다. 람은 "독일스포츠기자협회에서 내 경력 전체를 보고 판단해준 듯하다. 덕분에 내 인생에서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됐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